

유쾌한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 그림판'

김일태 초대전 '도시농부의 생소'展...오는 30일까지 산수아트스페이스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의 사물을 바라보고 그 위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이미지를 펼쳐내는 김일태 작가의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30일까지 산수아트스페이스(동구 산수동 26-4)에서 열리는 김일태 초대기획전 '도시농부의 생소'다. 김일태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신의 작업실 '소소한'에서 작업한 역작 20여 점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마치 생략취리의 '어린 왕자'처럼 재치 있고 유쾌한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본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가을 비, 찻잔, 모기장 등 일상의 소소한 사물에서 연상되는 기발한 이미지를 끄집어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신을 도시농부로 칭하는 그의 작업은 크게 두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다.

먼저 '연상작용을 통한 이미지의 미적인 단순화' 작업이다. 저녁노을, 나무 그림자, 발자국, 가을비 등을 보고



'우리동네 조선대학교'

연상되는 관념에 맞게 이미지를 미적으로 단순화시켜 관람객들이 흥미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한다.

작가는 작품 하나하나에 '발 걸기', '가을비는 사랑을 타고', '등대가 태풍을 피하는 방법' 등의 재미난 제목을



'한여름밤의 꿈-태풍과 등대'

붙였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세상을 독특하게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음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상상력을 통한 이미지의 서사화' 작업이다.



'악어떼가 나타났다'

작가는 머릿속 떠오른 이야기를 상징적 이미지로 연결해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그림판'을 만든다.

인듯 보던 통일적인 문양으로 채워진 단순한 이미지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이미지와 축약된 형태가 연속적으로 배열돼 있어 속 깊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중 하나인 '영산강 나들이' 작품은 담양 호수에서 시작해 광주를 거쳐 목포까지의 여정을 중요한 사건과 상징물로 축약해 선보인 '이야기 지도'다. 이는 우리 마음에 위안과 공감을 주는 커다란 부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작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시



'파리지역-노천카페'

선으로 자신만의 서사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관람자에게 새로운 통찰을 압니다.

장민한 산수아트스페이스 대표는 "김일태의 작품은 '일상의 서사'가 녹아든 심미적인 그림을 그리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며 "카메라와 포토샵 등 이미지 조작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미지와는 달리,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을 위트 있게 녹여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년 동안 동시대 미술 이슈를 중심으로 전시를 만들어온 산수미술관은 '산수아트스페이스'로 이름을 바꾸고 재개관했다. 세상을 대한 통찰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이에 합당한 철학과 함께 작품을 소개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돌 속에서 붓다를 찾다

이수천 초대전, 내달 11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

불안단목(佛眼豚目). 세상 만물을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 같아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 돼지 같아 보인다는 의미다.

돌로 조각된 작품에 부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조각 작품 전시가 마련됐다.

다음달 11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에서 진행되는 이수천 조각가 초대전 '돌에서 찾은 붓다'이다.

이수천 조각가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돌들이 부처 그리고 경전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때까지 깨내고 쪼개고 새기고 다듬는 것이 그의 작업이다.

이 조각가의 작품은 돌로 조각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단단한 돌에는 불교 경전에 있는 문자 파편들이 새겨져 있다.

딱딱하고 거친 돌 표면은 그의 손길을 거쳐 윤이 나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광채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희열은 수행자가 오랜 정진 후 마주하는 환희와



자신의 돌부처 조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수천 작가

도 같다. 주흥 갤러리생각상자 관장은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귀한 여정을 조각에 담아내는 수행자를 모시게 돼 기쁘다"며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작품 속 내면이 공명하는 감탄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핑크물리와 함께하는 박물관 콘서트

내일 나주박물관 중앙정원

완연한 가을을 맞은 10월의 마지막 주말, 가을 햇살과 핑크물리가 어우러진 국립나주박물관에서 특별한 음악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오는 28일 국립박물관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박물관 속 밴드' 공연이 국립나주박물관 중앙정원에서 개최된다.

각 박물관 전시, 대표 유물과 개성 넘치는 인디밴드 연주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프로그램이다. 관람객들이 음악과 유물을 매개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물관 속 밴드'에는 포크·락·컨트 리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소화하는 싱어송라이터 박소은(사진)이 관람객들과 만난다.

2015년 슈퍼스타K7 출연으로 주목 받고, 2016년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대중의 관심을 모은 박소은은 이번 공연에서 나주박물관 특별전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과 연계한 곡을 들려준다. /최명진 기자



고대 거울에 담긴 문양과 글자를 통해 사람들의 안경을 기원했던 당시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며, 전시와 공연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잇는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가을빛 음악산책'이 열린다. 아름다운 가을 정취와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에는 PLEA, 윤정훈, 정수민, U-CHAE가 참여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확인. /최명진 기자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참여자 모집

오는 28-29일 이틀간 접수

광주시립미술관이 '2024 북경창작스튜디오' 참여자를 모집한다. 북경창작스튜디오는 북경 예술구와의 네트워크 확장 및 지역을 넘어서는 국제적 창작 환경 구축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역작가를 중국 북경에 파견하며 한·중 미술 교류에 기여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광주문화예술 홍보를 위한 홍보관으로 임시 운영하다 지난해 말 잠정 철수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시립미술관은 두 도시 간 예술교류 회복과 지속을 위해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2024 북경창작스튜디오' 모집인원은 작가 및 연구자(기획자) 2명(팀)이다. 선발된 인원은 중국 북경 순의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및 거주 공간과 오픈스튜디오, 결과발표회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결과발표를 지원 받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창작지원비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자는 작가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출신이거나 연구가 있는 자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연구자(기획자)의 경우 지역 내외에서 활동하는 자로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창작환경의 글로벌 확장을 통해 광주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유도할 지역 예술가와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28-29일 이틀간으로,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미술관은 1차 서류접수와 2차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초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고. /최명진 기자

공모 접수는 28-29일 이틀간으로,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미술관은 1차 서류접수와 2차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초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고. /최명진 기자

공모 접수는 28-29일 이틀간으로,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미술관은 1차 서류접수와 2차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초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고. /최명진 기자

공모 접수는 28-29일 이틀간으로,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미술관은 1차 서류접수와 2차 프레젠테이션 진행 및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초 최종 선정작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고. /최명진 기자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레슨






전일파크골프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